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020센서스 이대로 가면 이민자들 위기

시민권자 여부질문 포함, 역사적 이민자 저집계 초래
센서스 예산 삭감, 적극적인 센서스 홍보도 장려 안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상무부가 70여년만에 처음으로 2020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면서 향후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자 수가 대폭 감소,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라틴, 흑인, 그리고 미원주민 등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 단체 전문가들은 17일 전국의 소수민족 언론들과의 전화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센서스 시민권 소지여부 질문이 수많은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억제할 것이며 사상 유례없는 적은 수의 이민자 집계를 이끌어 낼 것을 우려했다.

아투로 베르가스 남미계 권익단체

NALEO 대표는 "사상 가장 피해가 심각한 센서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불응답자수가 크게 증가해 남미계 인구가 크게 줄고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도 끊길 것"

"사상 가장 피해가 심각한 센서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불응답자수가 크게 증가해 남미계 인구가 크게 줄고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도 끊길 것"

-아투로 베르가스 남미계 권익단체 NALEO 대표

게 증가해 남미계 인구가 크게 줄고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도 끊길 것" 이라고 내다봤

다. 아시아 권익단체 아시안정의확대(AAJC)의 존양 대표는 "아시아인구의 60%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며 시민권 질문과 함께 센서스 예산의 대폭 축소로 인구의 부정확한 통계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테리 안 로웨탈 전 하원 센서스인구조사위원 스탭디렉터는 상무부가 2010년 시민권 질문 포함에 대한 여론수렴 마감일이 8월 7일 자정이라고 말하고 이전에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인들이 시민권 질문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censuscounts.org를 방문해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고 준비된 반대 의견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독립적인 의견을 쓰면 반영될 수 있다.

이후 의회가 상무부의 시민권 질문 센서스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역사적인 이민자 수 감소 집계가 시작될 수 >>5면으로 계속



사진은 2015년 BU 강연 모습, 보스톤코리아 자료파일

학생 등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토안보부(DHS)가 학생및교환방문프로그램(SEVP)의 개인 비자 및 SEVP허가학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7월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학생(F)비자 및 직업훈련(M)비자 수수료를 \$200에서 \$350로 거의 두배에 가깝게 인상하고 교환방문(J)비자의 경우 수수료를 \$180에서 \$200로 인상한다. 하지만 입주정부(au pair), 캠프카운슬러, 여름근로/여행관련 교환방문(J)비자 수수료는 \$35로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내용의 법규 변경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9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인천별 \$929^{부터}
부산별 \$999^{부터}

보스톤 호텔 비수기 최저가 한국행항공권

미서부일주 8일
1인 \$750~

FACE TRAVEL
617-424-8956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ENGEL & VÖLKERS

이일린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특별 사설〉 이 사설은 뉴아메리카 미디어의 주도로 소수계 언론들이 공동으로 보도하는 사설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수계 언론들 상무장관에게 2020년 센서스 시민권 질문 철회 촉구

미 통계청이 2020년 센서스 양식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포함할 계획이다. 질문이 포함되는 경우 모든 가구가 이 질문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월버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3월 의회와 입법자들에게 모든 시민들의 시민권 통계자료를 법무부가 요청했다며 통계청에 시민권 질문 사항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보스톤코리아는 70년 만에 모든 미국 주민들의 시민권 보유 여부 자료를 수집

하는 행위는 센서스에 동등한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보스톤코리아는 전국의 수십 개의 소수민 언론 매체와 동참하여 상무부가 질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보스톤코리아는 한인들에게 8월 9일 마감하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시민권 질문추가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의견을 올리도록 촉구 할 것이다. 공개 의견 수렴은 censuscounts.org에서 할 수

있다.

소수민 언론 매체는 성공적인 인구조사를 위해 우리 청중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2020년 인구조사 결과는 연방 기금이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할당되고, 각 주의 연방 하원의원 수와 선거인단 수의 재조정을 뒷받침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인권 이슈 중 하나이다. 또한 센서스 자료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회로 변화하고 있

는가를 대변한다. 2020년 총인구조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센서스당국은 소외된 유색 인종 지역사회에 공정한 연방 기금이 배도도록 신뢰를 주어야 한다. 소수민을 대변하는 언론은 반 이민 정책과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 지역사회에 우려를 조성하고 있음을 여실히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정보제공뿐만 아니

라 함께 동참하여 지역사회 권익을 보호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엄혹한 이민정책 하에서는 소수언론마저 2020년 인구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시민권 질문 추가는 잘못된 메시지 전달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센서스 참여를 저조케 만들어 부정확한 집계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Withdraw Citizenship Question from 2020 Census – Ethnic Media Leaders to Secretary of Commerce

The U.S. Census Bureau is seeking public comments on its 2020 Census plan, which includes a citizenship question on the census form all households must answer. Secretary of Commerce Wilbur Ross directed the bureau to add the untested question in March, after misleading stakeholders and Congress about the Justice Department's need for citizenship data from every person.

In our view (insert name of news outlet), collecting citizenship status data from every resident for the first time in 70 years will jeopardize any serious effort to achieve a complete count. We join dozens of ethnic media outlets across the country in demanding that the Department of Commerce withdraw the question. We will also urge our audiences to use the public comments period to explain why the decision to add the question is so misguided.

Ethnic news media are acutely aware of the high stakes our audiences have in a successful census. The 2020 Census ranks as one of the top civil rights issues of our time, underpinning how federal dollars are allocated to

our communities and who represents us at almost every level of government. It tells us who we are and who we are becoming as a society. The 2020 Census is the one and only act of civic engagement in which literally every person counts – equally.

But all that hinges on people's willingness to trust the government to rigorously adhere to the strict legal protections for census confidentiality and to ensure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to historically underserved communities of color. As media leaders serving many of the hardest to reach populations in the U.S., we know that public trust in government has eroded sharply, replaced by pervasive fear in the face of anti-immigrant policies and racist rhetoric.

We have a long history of informing, engaging and advocating on behalf of our communities. But when people are paralyzed by fear or alienated by anger and distrust, not even trusted intermediaries will be able to convince them to participate in the 2020 Census. In this climate, adding the citizenship question sends exactly the

wrong message and puts the 2020 Census at risk of an historic undercount.

Here is a sampling of comments from ethnic media leaders:

"It's a cynical ploy to diminish the influence of people of color."
-Yawu Miller, Editor, South Bay Banner (African American)

"Recent immigration policies have created a climate where immigrants, both legal as well as those who are undocumented, live in fear. Self-identifying as non-citizens in today's times is a risky proposition and those who are not citizens will not participate. It's as simple as that."
-Derek Barcikowski, White Eagle News (Polish American)

"Definitely adding the citizenship question will hurt participation. Even legal immigrants now have fear. Those who are not citizens will evade the questionnaire."
-Myong Sool Chang, Editor, Korean Boston (Korean American)

"People in the Turkish community don't want to share their status with anyone outside their own relatives. The question feels threatening to all immigrants, regardless of their status."
-Orhan Akkurt, Publisher, Zamen Amerika (Turkish American)

"The citizenship question will suppress the count which will defeat the very purpose of the Census."
-Vandana Kumar, India Currents

"The biggest undercount will be of 0 to 5 year olds, which means we won't be able to distinguish the identities of the next generation."
"The government should reconsider adding the question on citizenship which is rather personal and does nothing in terms of generating the head count except create fear in the minds of an already scared immigrant community."
-Fernando Andres Torres, freelance reporter and editor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뉴햄프셔 한인 팔굽혀펴기 비공인 세계 신기록

60파운드 백 메고 팔굽혀펴기 79회 과거보다 22개 넘겨 참전용사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자살방지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햄프셔 한인 강태용(45)씨가 팔굽혀펴기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강태용씨는 14일 뉴햄프셔 윈덤 소재 자신의 사업체 치마사지클럽 빌딩 주차장에서 60파운드를 등에 얹고 팔굽혀 펴기 79회를 기록해 지금까지 세계 기네스 신기록이던 57개를 22개 더 넘어섰다.

미병사자살방지(Stop Soldier Suicide)를 구호로 걸고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 강씨가 1-2개가 아닌 22개가 훌쩍 넘게 팔굽혀펴기를 넘긴 것은 미국내 베테랑 또는 병사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STD)로 인해 자살하는 숫자가 22명에 달한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다. 강씨는 이 기록을 기네스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네스는 약 12일에 거쳐 검사를 한 후 최종 확정되면 증서를 수여한다.

11살 때 미국에 건너온 1.5세 강씨는 행사전 미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을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절을 하고 시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강씨는 행사 후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달성했다”며 “참전용사들도 내가 극복한 것처럼 자살충동을 극복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씨는 타고난 운동체질, 11살 때 이미 한국 국기원 태권도 4단을 획득했다. 소년대회에서 두번이나 우승했던 경력도 있다. 강씨의 아버지 강정복씨(72)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다루는 것이 싫어 태권도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그럼에도 고등학교 시절 풋볼팀에서 쿼터백으로 활약했다. 뉴욕 소재 대학에서 풋볼 특기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아버지

의 반대로 진학을 포기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풋볼을 할 때) 너무 많이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밝혔다.

강씨는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같이 근무하는 친구의 권유로 마사지 가게를 차렸다. 매사추세츠 우번과 톱스베리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했으며 이를 팔고 뉴햄프셔 윈덤에 지금의 사업체가 있는 빌딩을 사들여 마사지샵, 체육관 등의 사업을 6년째 하고 있다.

강씨는 “사업이 바빠 하루에 4-5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정신력과 의지로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한번 팔굽혀펴기를 하면 약 300에서 500여회를 할 수 있다는 그는 “한시간 최고 팔굽혀 펴기2220기록을 내년에는 격파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ditor@bostonkorea.com



뉴햄프셔 한인 강태용(45)씨가 팔굽혀펴기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3/17/18 - 5/26/18	Sat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7/9/18 - 7/27/18	Mon-Fri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8/6 - 8/24	Mon-Fri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2018. 8. 1부터 학원 장소가 이전됩니다. (전화번호는 같습니다)
주소: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뉴햄프셔는 이번 행사의 초청대상을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은 물론 해방 후 한국에서 주둔했던 모든 미군 장병으로 넓혔다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 27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가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뉴햄프셔 보스카웬 소재 뉴햄프셔 주립참전용사묘지(NH State Veterans Cemetery)에서 7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개최한다.

지난해 뉴햄프셔 참전용사 행사는 뉴햄프셔 주류 언론인 콩코드 모니터의 1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뉴햄프셔 언론들은 한인회의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해마다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행사는 주립참전용사묘지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진행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햄프셔 한인회는 행사 후 석식과 기념품을 준비해 참전용사와 한인 동포들에게 제공한다.

뉴햄프셔는 이번 행사의 초청대상을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은 물론 해방 후 한국에서 주둔했던 모든 미군 장병으로 넓혔다. 이는 한국 주둔 미군장병들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이번 행사가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므로 상당한 교통체증을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이를 감안해 미리 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박선우고문 (603-767-1356)에게 하면 된다.

일시: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3시
장소: NH State Veterans Cemetery
Rte.3 Boscawen, NH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 노인회 21일 시코스트초청 점심 식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선 시코스트(Seacost) 협회는 한미 노인회 회원들을 뉴캐슬 바닷가로 7월 21일 토요일에 초청,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바닷가 나들이 점심식사에 참여를 원하는 노인회원은 토요일 오전 8시 45분까지 앤도버소재 북부 보스톤교회에 집결해야 한다. 회원들은 바닷가에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오락도 즐긴 후 오후 3시까지 다시 북부보스톤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회초청 점심식사 및 한방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교회 박종선 사회봉사부장의 사회로 정승목사의 환영사, 한미노인회 윤철호회장의 감사인사, 황규백박사의 한방강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점심식사 후에는 주종욱 권사의 매직쇼와 김지영 권사의 게임을 노인회원들이 즐겼다.

한미 노인회는 8월 한달 동안 사랑방 모임 방학을 갖고 9월 5일 다시 모임을 시작한다.

한편 북부보스톤 교회 한미노인 bostonkorean@hotmail.com



북부보스톤 교회 한미노인회초청 점심식사 및 한방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야외스포츠가 많은 당신을 위해
홍삼정을 밖에서도 간편하게!

땀을 많이 흘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엔 기본 보충해주는
홍삼이 좋습니다.

1포에 홍삼 농축액 3,000mg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정 홍삼과 홍삼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섭취하세요

6월 스페셜 프로모션

3+1

화애락본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30 상당 증정

신물제품 소진시 프로모션이 종료됩니다.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70 상당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미 전역 20여개 주에서 모인 한인 600여명이 워싱턴DC 연방의회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제 5회 한인풀뿌리대회(KAGC)를 가졌다

미주한인풀뿌리대회 600여명 보스톤지역 '우리도 참가'

한미정치신장연대 김성혁, CT 이민자보호선교회 조건삼 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전역 20여개 주에서 모인 한인 600여명이 워싱턴DC 연방의회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제5회 한인풀뿌리대회(KAGC)를 가졌다. 보스톤지역에서는 김성혁 정치력신장연대 대표와 커네티컷 이민자보호선교회 조건삼 대표 등 일부 학생들이 참여했다.

2세들의 참여 비중이 훨씬 높아진 이번 대회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자신의 지역구 상.하원 의원 40여 명을 7월 12일 찾아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12일 저녁 하얏트캐피탈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주최측은 은퇴하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 한.미 관계에 공헌해온 데 대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성혁 대표에 따르면 이 외 카스트로 의원, 클라크 의원, 그레이스 맥 의원, 주디 추 의원 등 20여명의

연방 상하원의원 등이 참여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비핵화 이룰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의 주도로 시작된 연방의회 한인풀뿌리유권자운동은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으며 한국의 김경협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국대표단 주미대사관까지 참여하고 있는 행사다.

"조금 무리였지만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워싱턴을 다녀왔다" 는 김성혁 대표는 "미 의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체험하고 한인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운동을 고착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특히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현재 매사추세츠 제 3지역구에 출마한 대고(민주당) 후보를 비롯 캘리포니아의 영 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한인 연방의원의 배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국제간호사 비전과 전망 주제 보스톤 세미나 개최

국제간호리더협회, '나는 국제간호사다' 공동주최
베이스이스라엘메디컬센터에서 8월 25일 오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간호리더협회(이하 KINLA)와 '나는 국제간호사다' (이하 나국간)가 베이스이스라엘메디컬센터에서 국제간호사 관련 세미나를 8월 25일 개최한다.

보스톤 특강에서 보스톤칼리지를 졸업한 배운영 미국전문간호사가 '미국 전문간호사의 커리어 관리에 대한 특강과 효과적 이력서 작성방법',

예일대 재학중인 김민재 미국전문간호사가 '국제 간호사의 비전과 전망' 과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유학'에 관한 특강을 각각 진행한다.

김민재 KINLA 대표는 "우리는 어떻게 한인 간호인들과 의료인들을 국제적인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간호 나아가 의료계의 선배로서, 어떻게 후배들이 한인 의료인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번 보스톤 강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간호리더협회(이하 KINLA)와 '나는 국제간호사다' (이하 나국간)가 베이스이스라엘메디컬센터에서 국제간호사 관련 세미나를 8월 25일 개최한다

강연 외에도 보스톤칼리지, 예일, 뉴욕대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해 한인 의료인들의 역할 및 비전과 전망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와 멘토링 그리고 질문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제간호리더협회와 나국간은 이번 강연에 앞서 한국의 서울롯데타워, 부산한화리조트,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도 국제간호 컨퍼런스를 개최했었다.

의료인, 대학생, 간호대학생 및 대학원생, 간호사, 간호 및 의료에 관심 있는 모든 한인을 대상으로 이번 강연은 진행된다. 참가비는 \$50이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신청은 <https://shorturl.at/IntW2> 링크에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 인간호사 협회 피크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 인간호사협회는 브라이트 소세 솔져스필드 찰스강변에 위치한 크리스찬허터파크(Christian Herter Park)에서 8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여름 피크닉을 갖는다.

이번 피크닉에는 다양한 분야 각양각색의 한인 간호사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병원 교육가, NP, 임상 간호사, 간호대 교수, 미국 간호사 취업을 준비생, 학생 등 다양한 선배 동료 간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무료 직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야외 피크닉의 참가비는 개인이나 가족 모두 \$20이다. 비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참가도 환영한다. 식사 게임 그리고 워터 파운틴 등도 마련되어 있다.

피크닉 문의: info@koreannurses.org
웹사이트: www.koreannurses.com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무료 보스톤 하버 크루즈 신청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하버나우와 베이스테이트 크루즈컴퍼니는 올해도 아시안태평양계 보스톤 주민들에게 무료 보스톤 하버 크루즈를 제공한다.

대형 크루즈 선박인 프로빈스타운II호를 타고 보스톤 항구에서 8월 20일 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선셋크루즈를 즐길 수 있다. 무료 크루즈는 월드트레이드센터 선착장 (200 Seaport Blvd, Boston)에서 5시 45분부터 승선할 수 있다.

이 선박 무료티켓을 받기 위해서는 7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 보스톤코리아닷컴의 무료입장권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는 총 900여장의 티켓이 접속 시작 27분만에 모두 소진됐다.

무료 크루즈 입장권 링크 : <https://www.eventbrite.com/e/the-3rd-annual-omg-theyre-still-giving-us-a-boat-free-summer-fun-cruise-around-boston-harbor-tickets-48185683677>



보스톤하버나우와 베이스테이트크루즈컴퍼니는 올해도 아시안태평양계 보스톤 주민들에게 무료 보스톤 하버 크루즈를 제공한다

올해로 세번째 “OMG. They're STILL Giving Us a Boat!” 무료 크루즈 행사를 주관한 레버렛윙씨는 “보스톤하버나우가 보스톤의 아시안 커뮤니티에 크루즈를 소개하는 행사로 이를 이용하는 아시안들도 즐길 수 있는 행사” 라고 말하고 이번 행사에 대한 질문 또는 음식 기부, 후원을 원하

는 사람들은 레버렛윙 (Leverett.Wing@Gmail.com), 또는 크리스티나첸 (CChan84@Gmail.com)에게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주최측은 이날 음식 비용을 기부할 사람 또는 음식을 기부할 후원자를 찾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 연수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차세대들을 초청해 모국연수를 개최한다.

24일(화)부터 31일(화)까지 7박 8일간 열리는 이번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이하 모국연수)에는 내년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1천여명의 재외동포 중고생과 대학생이 참가한다.

모국연수는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국내외 차세대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한반도 하나로 잇기’ 를 주제로 열리며, 중고생은 서울과 천안을 기점으로 광주, 군산,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 대학생은 서울, 부산, 경주 등에서 모국을 체험한다.

25일(수)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열리고, 1천여 명의 참가자와 국내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함께 자주독립의 함성을 재연하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후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누어 팜스테이, 일일학생체험, 농어촌체험,

전통음식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모국을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특히, 파주지역 체험 참가자 100여명은 25일(수)부터 이틀간 파주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하고, DMZ에서 거주국 언어로 평화선언문을 낭독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

또한, 29일(일)에는 내년 3.1운동의 1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서울 탑골공원과 인사동 거리에서 3.1 만세운동을 재연하는 평화 퍼포먼스와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임스 파이오렌티니 해버힐 시장이 매사추세츠 3지역구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덴고후보 공식 지지를 19일 선언했다

해버힐 파이오렌티니 시장 연방하원후보 덴고 지지선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임스 파이오렌티니 해버힐 시장이 매사추세츠 3지역구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덴고후보 공식 지지를 19일 선언했다.

파이오렌티니 시장은 해버힐 다운타운 소재 위키드빅카페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덴고 후보가 해버힐 다운타운의 경제개발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후보란 점을 강조했다.

파이오렌티니 시장은 “우리는 무작정 이곳을 지지 기자회견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곳은 해버힐 부흥의 심장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우리는 이곳에 2억달러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후보가 필요하다” 며 덴고를 지지했다.

덴고는 파이오렌티니 시장이 “훌륭한 시정활동 기록을 갖고 있다. 이 시를 더 사랑받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생애를 바친 사람” 이라고 칭찬했다. 덴고 후보는 해버힐 시장,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위키드

빅카페 시장과 같은 소상공인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 4일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고 후보는 연방의원으로서 공정한 경제활동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바마케어와 같은 전체 헬스케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현재 메리맥벨리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제임스 자주가 멧두는 시장의 지지도 받았으며 해버힐 시의회 의장 존 피치슨, 멧두는 시의회 의장 제니퍼 카난, 전 해버힐 주 하원 프랭크 에밀로, 멧두는 학교위원회 니콜라스 디조글리오 부회장 등의 지지도 받고 있다.

덴고후보는 해버힐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유일한 후보다. 그는 앤더버, 로웰, 허드슨, 피치버그 등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있다. 고 후보는 제3지역구에서 가장 강력한 당선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바다 향 가득~ 돌아온 랍스터의 계절



스터 레스토랑으로 소개한 곳이다. 바삭한 핫도그번에 두툼한 랍스터 살집이 마요네즈에 버무려 나온다.

1 S. Main St., Winthrop, MA. 617-567-1619

LUKE'S LOBSTER

백 베이에 위치한 랍스터 맛집이다. 랍스터와 새우, 클램 차우더를 신선하게 맛볼 수 있다. 배달도 가능하다.

75 Exeter Street, Boston, MA. 857-350-4626; ukeslobster.com

ROY MOORE

빨간 랍스터 간판이 인상적인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락포트맛집이다. 통째로 찌낸 랍스터, 스테프트 클램, 칵테일 쉬림프를 먹기 위해 먼 곳에서도 손님이 찾아온다.

39 Bearskin Neck, Rockport, MA. 978-546-6696

THE LOBSTER POOL

락포트의 케이프 앤(Cape Ann)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 버터 바른 빵에 두툼한 랍스터 살과 마요네즈, 양상추를 곁들여 제공한다. 이곳의 랍스터는 인근의 글로스터에서 매일 신선하게 공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329 Granite St, Rockport, MA. 978-546-7808; thelobsterpool.com

MACS SEAFOOD

바닷가의 운치는 좋지만 지저분한 테이블이 싫다면 추천한다. 분위기 있는 랍스터 음식점으로 웰플릿에 위치해있다. 랍스터 외에 굴과 스시 등을 판매한다.

91 Commercial St, Wellfleet, MA. 508-349-

6333; macsseaford.com

WOODMANS

노스 쇼어(North Shore)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나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다. 랍스터 외에 프라이드 클램이 유명하다.

121 Main St, Essex, MA. 978-768-6057; woodmans.com

LOBSTER CLAW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30피트 길이의 배를 인테리어로 사용하여 바닷가 마을 분위기를 살린다.

42 Cranberry Highway, Orleans, MA. 508-255-1800; lobsterclaw.com

ARNOLDS RESTAURANT

케이프 코드의 빼놓을 수 없는 해산물 맛집이다. 보물섬 테마의 미니골프장도 구비되어 있다.

3580 Route 6, Eastham, MA. 508-255-2575; arnoldsrestaurant.com

RED'S SEATS

지난 반세기동안 랍스터 롤을 판매해왔다. 별도의 드레싱 없이 버터와 마요네즈를 곁들여 먹어 단순한 레시피가 오랫동안 사랑받은 비결이다. 한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메인 주에서 가장 맛있는 랍스터 롤로 유명하다.

41 Water St, Wiscasset, ME. 207-882-6128; redseatsmaine.com

FIVE ISLANDS LOBSTER COMPANY

마을 부두에 위치하여 신선한 랍스터를 바다에서 바로 공수한다. 하루종일 잡아올리는 랍스터를 삶아 마요네즈와 버터바른 구운 빵에 양상추 한 장 올려 서빙한다.

1447 5 Islands Rd, Georgetown, ME. 207-

371-2990; fiveislandslobster.com

THE CLAM SHACK

뉴잉글랜드투데이(New England Today)에서 뉴잉글랜드 최고의 랍스터 롤로 꼽힌 곳이다. 랍스터의 신선도를 위해 재료 공수에서 보관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맛을 제공한다. 지역 베이커리에서 구운 햄버거 빵을 사용하며 따뜻한 랍스터에는 버터를, 차가운 랍스터에는 마요네즈를 곁들인다.

2 Western Ave, Kennebunk, ME. 207-967-3321; theclamshack.net

RYE HARBOR LOBSTER POUND

라이 하버의 마을 부두에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작은 가게로 참신한 랍스터 메뉴들을 만날 수 있다. 랍스터 가스파초, 랍스터 피자를 비롯하여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제공한다.

1870 Ocean Blvd, Rye, NH. 603-964-7845

ABBOTT'S LOBSTER IN THE ROUGH

최근 새로 발표한 메뉴 OMG 랍스터 롤은 7온스의 따뜻한 버터에 버무린 랍스터 살을 햄버거 빵 사이에 끼운 것이다. 차가운 랍스터 롤도 판매하며, 하우스 드레싱에 버무려서 핫도그 빵에 끼워 판매한다.

117 Pearl St, Groton, CT. 860-536-7719; abbottsl lobster.com

LOBSTER LANDING

랍스터 롤에 이태리 풍미가 가미되었다. 핫도그 빵 대신 바베큐 그릴에 구운 목직향 이태리 빵을 사용하여 더 뜨끈하고 고소한 랍스터 롤을 맛볼 수 있다.

152 Commerce St, Clinton, CT. 860-669-2005; sun@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뉴잉글랜드의 여름은 랍스터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해안가에서 여름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너나할것 없이 랍스터 롤을 찾는다. 버터향이 솔솔 나는 핫도그 빵에 랍스터 한마리에서 나오는 살을 풍덩 담아 마요네즈와 레몬을 곁들여 먹으면 바다를 한입 베어문 것 같다.

여름철은 랍스터 잡기가 수월한 계절이라고 한다. 랍스터가 해안에서 더 따뜻한 물로 이주하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여름 초에 하는 낚시같이 7월과 9월 사이에 잡히는 랍스터는 대부분 부드러운 껍질을 특징으로 하며 단단한 껍질의 랍스터 보다 맛과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어느때보다도 풍성하게 랍스터를 즐길 수 있는 여름을 맞아 뉴잉글랜드 내의 유명한 랍스터 맛집 14곳을 소개한다. 소개하는 순서는 매사추세츠, 메인주, 뉴햄프셔 그리고 코네티컷이다.

BELLE ISLE SEAFOOD

보스톤매거진과 임프로퍼 보스톤이 최고의 랍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P 상품 방송 3사 / 동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	--	--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패블릿 시대 연 갤럭시노트 'S펜'도 진화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갤럭시 노트의 상징인 'S펜'이 아홉번째 진화를 거듭한다. 단순히 화면에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리던 'S펜'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노트'에 쓰는 '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진화한 'S펜'은 이제 무선리모콘 역할까지 해낼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 'S펜'은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진화를 거듭했다.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디지털 펜 전문회사 일본 와콤(Wacom)사와 협업해 내놓은 첫 'S펜'은 "펜으로 종이에 글씨를 쓴다"는 개념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했다. 펜팁 지름 1.6mm의 'S펜'은 필압 단계가 256(숫자가 높을수록 반응성이 좋다)으로 '메모' '플래너'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됐다.

단순 '필기' 도구였던 'S펜'은 갤럭시노트2부터 '펜' 이상의 기능을 제공했다. S펜을 화면 가까이 대면 콘텐츠를 자동으로 보여준다거나, 사진을 올려내는 기능 등이 그것이다. 또 어느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든 S펜만 뽐으면 노트 알림창이 뜨도록 해 사용의 편리함을 더했다. 필압 단계도 1024로 향상돼 더 민첩하게 반응했다.

2014년 출시된 갤럭시노트4에서의 'S펜'은 필압이 전작보다 2배 향상(2048)되며 더 민첩하게 반응했다. 처음으로 '만년필'과 '캘리그래프' 기능을 갖추고 쓰는 재미까지 느끼게 해줬다.

필압을 그대로 가져간 갤럭시노트5는 지금도 많은 이용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델이다. 그만큼 'S펜'의 진화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5 'S펜'에 '꺼진 화면 메모' 기능을 탑재했다. 'S펜

'을 꺼진 화면에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필기 본연의 기능이 화면 온·오프에 상관없이 작동하면서 이용자의 만족감이 컸다.

또 처음으로 'S펜'을 보관하는 곳에 스프링을 설치해 '손톱'으로 빼내야 했던 수고로움을 덜게 했다.

'배터리 발화'로 곤욕을 치른 갤럭시노트7이지만 'S펜'만 놓고 본다면 가장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필압 단계가 갤럭시노트1보다 16배 향상한 4096이다. 펜팁 지름은 계속 1.6mm를 유지하다가 갤럭시노트7에서 처음으로 0.7mm로 얇아졌다. 화면에서 움직이는 'S펜'의 민첩함이 전작들을 압도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9일 미국 뉴욕에서 아홉번째 갤럭시노트를 선보인다. 갤럭시노트7에 이어 2년 만에 기능이 대거 추가된 'S펜'을 선보일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새로운 S펜은 2.4기가헤르츠(GHz)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이 적용돼, 블루투스 스피커나 음악재생 '버튼', 카메라 '셔터'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ckim@news1.kr



갤럭시노트9 사진

비행기서 초등 1학년 교사에 낯선 승객이 수백불 건넨 사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시카고 초등학교 여선생님인 김벌리 버뮤데즈(27)씨가 비행기 동승객으로부터 수백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사연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김벌리 버뮤데즈 씨는 7월 중순 그녀 부모를 만나러 플로리다행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타고 가는 중 옆자리 승객이 직업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1학년 담임이며 이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일부는 노숙인의 자녀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본인도 인정하는 수다쟁이 버뮤데즈씨는 학생들이 굶고 학교를 등교하고 등골이 휘도록 일하는 이민자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이야기 했다. 버뮤데즈씨는 이어 "집에서 일어난 일마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살고 있다" 고 말했다.

버뮤데즈씨는 또 학교의 교사들과 교무교사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학생들의 생필품, 학용품 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옆자리 승객은 그녀의 열성적인 말에 자신의 회사에서 차터스쿨인 카를로스 푸엔테스 초등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그녀는 환영할 것이라고 반색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의 등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돌아보자 무릎에 아이를 앉힌 뒷자리의 낯선



시카고 초등학교 여선생님인 김벌리 버뮤데즈(27)씨가 비행기 동승객으로부터 수백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사연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승객은 \$100짜리 지폐가 맨위에 놓인 돈을 건넸다. 그녀는 사람 앞에서 돈을 세지 말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그는 돈을 받고 감사하다고만 했다.

비행기가 잭슨빌에 도착했을 때 복도 건너편에 있던 승객도 그녀의 이야기를 엿들었음을 이야기하면서 \$20을 건넸다. 그녀의 앞에 있던 승객도 \$10을 건넸다.

감격에 눈물을 글썽이며 버뮤데즈씨는 "난 결코 돈을 청하려 이야기한 것은 아니며 내 부모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러나 이 승객들은 "안다. 그래서 기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와, 타고난 이야기 실력을 잘 사용하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마중 나온 엄마의 차에 타서 받은 돈을 세어보니 100불짜리 5개, 20불짜리 1개, 10불짜리 1개였다.

버뮤데즈씨는 이 이야기를 페이

스북에 올렸고 최초엔 약 1천명이 좋아요를 800명이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고, NBC의 투데이 등 각 언론이 보도한 이후 무려 5만 1천명이 좋아요를, 공유 1만 7천회를 눌렀다.

버뮤데즈씨는 기부금으로 학생들을 위해 책을 구입할 계획이다. 자신의 학생들은 집에 너무 적은 책만 있어서 많은 책을 읽지 않는 것이 특장이라던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백팩과 다른 학용품도 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 스토리가 전국을 흔드는 가운데서도 무려 500달러 돈을 건넸던 남자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버뮤데즈씨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는 단지 놀라운 낯선 사람이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찰스강 바라보며 야외에서 즐기는 맥주

보스톤과 브라이튼에 비어 가든 오픈 여름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스강의 경관을 보며 야외에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비어 가든이 보스톤에서 문을 연다. 맥주 제조 및 판매 회사인 나이트 쉬프트(Night Shift)는 찰스강변을 따라 보스톤 해치웰 근처와 브라이튼 허터 파크 근처, 2곳에 비어 가든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클 옥스톤 나이트 쉬프트 공동 창업자는 “우리는 오랫동안 비어 가든을 열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왔다. 아주 신나는 일이다”라며 “찰스강변에서 비어 가든을 열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는 찾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에버릿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나이트 쉬프트는 매사추세츠 DCR(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의 허가를 받아 야외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에스플라네이드에 위치할 비어 가든은 8월 초에, 그리고 브라이튼에 위치할 비어 가든은 8월 중순에 문을 열 계획이다. 두 가게 모두 10월 말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된다.

나이트 쉬프트 비어 가든에서는 자사의 맥주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다른 맥주 회사들의 맥주도 판매하며, 무알콜 음료도 판매할 예정이다. 옥스톤은 “비어 가든은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나이트 쉬프트는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때마다 약 50센트를 DCR에

납부해야 하며, 이 돈은 주립 공원의 유지 및 보수비용에 사용된다. 나이트 쉬프트는 비어 가든 2곳을 열기 위해 초기 비용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이미 지출했다.

해치웰 근처에 위치할 비어 가든은 주 5일 문을 연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정오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8시까지다. 브라이튼의 비어 가든은 주말에만 영업하며, 토요일에는 정오부터 10시까지,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8시까지 문을 연다.

jsi@bostonkorea.com



찰스강을 따라 보스톤과 브라이튼 2곳에 비어 가든이 문을 연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취업 박람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주에서 유흥용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예상보다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리화나 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취업의 길이 열려 있다. 마리화나 회사들과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 25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락스버리에 위치한 락스버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마리화나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14개 마리화나 회사들이 참여하며 2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다.

의료용 마리화나와 유흥용 마

리화나와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며, 취업 박람회는 무료로 진행된다. 일부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소규모 이벤트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마리화나 업계가 보스톤에서 공개적으로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 박람회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사추세츠 유흥용 마리화나 소비자 협회의 카마니 제퍼슨 회장은 “우리는 아주 흥분된다. 사람들이 와서 마리화나 업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MA주 교육 예산 연간 10억 달러 부족

비영리 단체 교육 예산 부족 심각성 지적 25년 간 바뀌지 않고 있는 계산 방식 문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공립 학교들이 연간 1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 부족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사추세츠주 전역에 걸쳐 각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줄이고, 학교 비품과 최신 기자재 구입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보스톤에 위치한 진보 성향의 비영리 단체인 매사추세츠 버지 앤 팔러시 센터(Massachusetts Budget and Policy Center)는 18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25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오래된 계산 방식을 사용해 심각한 예산 부족 상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322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회 내에서도 각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회기를 넘기고 말았다. 브록턴과 우스터 학교에서는 오래된 계산 방법을 통해 배정되는 예산은 공립 학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 중이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계산 방식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의료보험 비용과 특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 두 분야를 위해 의회에서 배정한 예산은 20억 달러이지만, 실제로 각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은 26억 달러

라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학생은 영어 구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하원 의회에서는 의료 보험과 특수 교육 비용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즉각 고려해보겠다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상원 의회에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상원 교육위 소속인 소니아 쉐-디아즈 의원(보스톤, 민주당)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왔고,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유효한 해답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EU 구글에 5.7조 벌금 부과, 사상최대... 구글 즉각 항소

(서울=뉴스1) 박형기, 이창규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 기록적인 50억달러(5조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의 반독점 경쟁분과위는 구글이 “전반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유럽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체제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벌금은 지난해 가격비교 쇼핑 검색 반독점 위반으로 받은 벌금 24억 유로의 약 두 배에 이르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지난 2주간의 매출에 상응하는 규모다.

EU는 이와 함께 구글에 90일 내에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들과의 계약 시 반경쟁적 관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알파벳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에 달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검색 엔진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경쟁업체들의 혁신과 그들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번 벌금 부과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유럽지부의 알 베르니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 활발한 환경과 신속한 혁신, 낮은 비용은 경쟁이 치열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며 “EU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opark@news1.kr



오래된 계산 방식에 의해 책정된 예산안 때문에 10억 달러의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팩스뉴스도 러 편든 트럼프 대통령 비난

(서울=뉴스1) 김윤경, 강민경 기자 =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 보인 언행에 대한 평가는 온통 부정적이었다. 정가와 전현직 관료들이나 분석가들은 물론, 공화당과 친(親)트럼프 성향의 팩스뉴스까지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부정했고 오히려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을 부정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평가까지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리 정보당국 사람들을 대단히 신뢰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강력히 대선 개입을 부인했다"면서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애국자들이라면 일어서서 대통령의 행동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선동적인 비판까지 나왔다. 이 발언은 바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맡았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했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입에서 나왔다.

해임 이후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해 온 코미 국장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외국 땅에서 살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강대국 옆에서 자기 나라를 지지하길 거부한 날이었다"며 "애국자들은 일어서서 대통령의 행동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역시 정보당국자였던 존 브레넌 전 CIA 국장도 발끈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반

역적'이라고 했고 "완전히 푸틴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고 비난했다.

척 하겔 전 국방부 장관은 '전 세계에 있어 슬픈 날'(a sad day for the world)이라고 했고 CNN에서 분석가로 활동하는 제임스 클래퍼는 트럼프가 "본질적으로 항복했다"고 말했다. 클래퍼는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이다.

현직 DNI 국장인 코츠는 아예 내놓고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미 대선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위터를 통해 "헬싱키 회담 기자회견에서 그가 한 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자기 자신, 그리고 즉흥적인 본능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수일 내에 몇몇 스태프가 잘리는 것을 기대해 보자"라고 지적했다.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차관

도 "대통령의 역사에서 이번과 비슷한 경우는 없었다"고 트윗을 올렸다. 번스 전 차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기관의 직무유기를 공격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편을 들었다"고 말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외교 정책의 목적은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대통령)의 관심사와 국제질서에 다른 사람들이 발맞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헬싱키 회담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잘 지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러시아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선거(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러시아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러시아가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s914@news1.kr



미러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나서서 부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든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그래픽(출처=악시오스)

트럼프, 미러회담서 세 가지 과오 저질러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돌발 발언'을 쏟아내 언론과 정치권의 심자포화를 맞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가 (대선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변호하면서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하는 순간 기자들이 놀라서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보기관이 여러 차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질문이 들어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의 이메일 서버 이야기로 말을 돌렸던 장면이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결탁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캠프 서버와 클린턴의 이메일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불평했다.

마지막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 개입 의혹을 부정할 때 옆에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모습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

서 고개만 끄덕이고 서 있었다는 점이다.

악시오스는 이번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던 백악관 관계자 대부분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팩스뉴스마저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에서 미러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던 닐 카부토 팩스비즈니스 진행자는 "유감스럽지만 역겹다"면서 "좌우를 막론하고 이 건 그냥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정치권, 특히 공화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온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이를 두고 "비극적인 실수"라고 말했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 미치 매크넬(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입을 모아 "러시아는 동맹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pasta@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총 13개 Live방송중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비데TV / 이엔티TV / KTV / 우리방송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트럼프, 북 비핵화 속도조절론 거듭 언급 "서두를 필요없다"

(서울=뉴스1) 정진탄, 박승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며 "우리는 단지 프로세스를 진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프로그램과 전세계 핵무기 감축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우리는 단지 그 과정을 겪어 나갈 뿐"이라며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억류자는 돌아왔으며 지난 9개월간 핵 실험과 로켓 발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같은 발언은 앞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이라며 '속속속결·일괄 타결'을 외쳤던 종전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미 정부는 6·12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과 함께 그 신속한 이행을 주장했지만 이달 초부터 협상 장기화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우린 지금 북한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며 "서두를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라고 표현하며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또 지난 13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한 비핵화) 과정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를 주요하게 했으며 "러시아는 지지를 약속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내게 100% 동의한다"며 "그들은 무엇이든 해야 할 것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그러나 핵무기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러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후 나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를 끝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확신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와 협력할 것이며 이 약속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여러차례 밝혔듯이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우리 정보기관의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한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는 미국의 재앙"이라고 자국 정보기관을 저격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서도 논란의 원인을 미 언론 탓으로 돌렸다.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얻어냈다고 생각한 '성과'보다 '문제 언행'에 초점을 맞춰 집중포화를 한다고 불평을 드러낸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막대한 기금을 마련하면서 위대한 만남을 가졌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그보다 더 나은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슬프게도, 이것은 그런 식으로 보도되지 않았다"며 "가짜 뉴스는 미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seunghee@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금리인상 불만... 달러강세 미국에 불리"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신나지 않는다 19일 공개된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연준 금리인상이 기쁘지 않다고 거듭 말하면서, 연준 내부에는 아주 좋은 사람을 넣어 놓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는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통화가치에 대해서는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acenes@news1.kr

트럼프 "EU, 미국 이용하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EU가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 기록적인 5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EU는 구글에 90일 내에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들과의 계약 시 환경정책 관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알파벳의 전 세계 일

평균 매출액의 5%에 달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내가 뭐랬나! EU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기업 중 하나인 구글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그들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s@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점심 뷔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습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위자료 2억 배상

학생 116명 · 일반인 2명 유가족 소송 2년10개월 만에 유족 "돈으로 보상 바라는 것 아냐...진상규명 돼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 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일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

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는 △일부 유족들이 4·16 세월호참사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위자료(1인당 1억원)를 수령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6억~7억원으로 산정됐다.

유족들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어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 명시하고 싶다"며 "그래야만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



고 밝혔다.

이어 "이 세상에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더구나 부모라면 어떻게 자식의 죽음을 돈으로 보상을 바라겠나. 가족의 마음으로 오직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웠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중·개축 △교육훈련 미준수 △운항 과실 및 사고 발생시 초동 대응 미조치 등으로 사고의 발생

과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에 참여했다. 중간에 소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족 354명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소송 참가자가 늘고, 사건이 병합되면서 당초 103억원이던 청구금액은 지난 3월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에 따라 1000억원 상당으로 늘어났다. 이는 희생자 기준으로 1인당 10억원 내외의 수준이었다.

asd123@news1.kr

세월호 유족, 아직 기쁘지 않아 정부 구체적 책임 명시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한 결과와 관련해 유족들은 "소송의 목적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9일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큰 책임을 묻는 2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혀야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

해줘서 지금까지 왔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 그 판결문에 어떤 것이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족이기 때문"이라며 "그 희생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 아이가 남겨준 숙제를 해내고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했다.

asd123@news1.kr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심사 출석

(서울=뉴스1) 심언기, 이철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수사 착수 후 첫 시험대에 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자금을 건네는데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인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드루킹' 김도모(49)의 측근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도 변호사는 심사 시간에 맞춰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와 드루킹 김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돈을 건네는데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와 노 원내대표는 경기고 동기 동창이다.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 측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

로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 무혐의를 이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당시 제출됐던 증거가 위조됐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재수사에 착수, 계좌흐름 등을 추적해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거절당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댓글작업, 인사청탁, 불법자금 등 경공모 활동 전반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onki@news1.kr



드루킹 김동원(49)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ULY 20 - JULY 26, 2018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ICE ICE CREAM THE SOFT AND CHEWY TEXTURE FROM RICE IS UNMATCHED. LET'S INTRODUCE YOU TO A LIFE-CHANGING ICE CREAM. IT'S RICE CREAM YOU DREAM ABOUT.

H마트가 알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맛!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쌀 아이스크림을 소개합니다.

Follow us @hmartofficial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location for you. 공식적으로 성공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왕성돈 후치사과 프리미엄 \$1.49 lb.</p>	<p>Dragon Fruit 드래곤 과일 \$3.99 lb.</p>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5.99 ct.</p>	<p>Packed Garlic 패 마늘 5cnc/pkg 2\$3 pkg./lb.</p>	<p>Stem Tomato 스텝 토마토 \$0.99 lb.</p>
<p>JINGA Tofu 진가네 두부 Soft/Firm - 16oz./pkg \$0.99</p>	<p>Gobo 우엉 \$1.99 lb.</p>	<p>Washington Red Cherry 레드 체리 \$2.49 lb.</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lb.</p>	<p>White Peach 백도 \$1.99 lb.</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2.99 lb.</p>	<p>Beef Eye Round Chunk 강조림용 육두깨 \$6.99 lb.</p>
<p>Pork Tenderloin (Whole) 돼지 안심 \$3.99 lb.</p>	<p>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생목살 \$5.99 lb.</p>
<p>Beef Short-Rib Plate 냉동 우삼겹살 \$7.99 lb.</p>	<p>Marinated Sliced Beef Ribeye Roll Bulgogi 양념소고기 \$6.9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Head-on Shrimp 머리새우 9-10oz \$5.99 lb.</p>	<p>Frozen Squid 냉동 오징어 \$2.99 lb.</p>
<p>Squid Tube 오징어 튜브 \$3.99 lb.</p>	<p>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5.99 lb.</p>
<p>TONGTONGBAY Cooked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바지락살 2\$6 pkg./lb.</p>	<p>Monkfish Tail 아귀등등 \$1.99 lb.</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NISHIMOTO Sekko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가 쌀 15 lbs. \$9.99</p>	<p>CHUNGJUNGONE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향 현미 대장조 율고추장 \$12.99 6.5 lbs.</p>
<p>HAJOREUM Fresh Cold Noodles 해오름 냉면 48 Portions 2.2 lbs. \$3.99</p>	<p>DONGSUN MASHIN Coffee Mix 동서 맥심 카피믹스 Original/Mocha/Gold Milk 100%Arabica \$12.99</p>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AWARDS WINNERS

Thank you to all the participants and Congratulations to all our winners!

Grand Prize: \$1,000 Sponsorship & Trophy (Award Certificate)

Barnabas Ryu (Pre K)

<p>1st Prize: \$200 Award Certificate & Trophy (Award Certificate)</p>	<p>2nd Prize: \$100 Award Certificate & Trophy (Award Certificate)</p>	<p>3rd Prize: \$50 Award Certificate & Trophy (Award Certificate)</p>
--	--	---

<p>GWANGCHUN Broom/Broom Set 광천 솔차 도시락김 + 김치통 세트 6.17oz. x 100, 10oz. x 100, 10oz. x 100 \$12.99</p>	<p>KIKKOMAKI Soy Sauce 기치만 간장 1pt. \$12.99</p>	<p>SHIRAKI 100% Pure Sesame Oil 시라키유 99% Pure \$9.99</p>	<p>GI BING Classic Dumplings / Crispy Potstickers 디 비빙고 클래식 왕만두/로망두 \$7.99 1.75 - 2 lbs.</p>	<p>GON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5.5 lbs. \$3.99</p>
<p>HAJOREUM Dried Shiitake Mushroom 해오름 표고버섯 1 lb. \$9.99</p>	<p>DONGWOO Seasoned Small Octopus 동우 얼방 양념 오징어 All Flavors - 2.7lb.oz. x 8ea./pkg. \$14.99</p>	<p>EBBIEE Medusa Ice Cream Bar 빙그레 에비나 아이스크림 All Flavors - 2.7lb.oz. x 8ea./pkg. \$3.99</p>	<p>HWOREUM Canned Mackerel Pilsu 해오름 공회 명조림 14.1oz. \$1.99</p>	<p>NONGSHIM Snack Mix 농심 과자 기획세트 25.9oz. \$10.99</p>
<p>ITOM Drink 이토엔 드링크 All Flavors 57.5oz./ea. \$3.99</p>	<p>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16.5oz. \$2.99</p>	<p>HELLO Laundry Rack 헬로 스탠딩 빨래 건조대 Large \$25.99</p>	<p>ZOJIRUSHI Travel Mug 조지루시 여행용 머그 0.6L Stainless Steel \$29.99</p>	<p>Pottery Chopstick 자기야箸 4pc Assorted - Cat & Fish \$1.29</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공식 판매처)
H-M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6579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사법농단 수사'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들여다본다

대법, 상고법원 도입 위한 靑 창구로 현기환 활용 정황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 지역에서 판사들이 연루됐던 법조비리 의혹에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비리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 경고조치만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 부산 지역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판사들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했다고 다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당시 부산고법 문모 부장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의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 문 전 부장판사는 2011~2015년 정씨로부터 수십차례 골프접대를 받고 정씨 및 정씨의 변호인과 룰살롱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문 전 부장판사의 비위사실과 관련해 입건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당시 법원행정처 실무

를 총괄하던 임종헌 차장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경고조치 지시만 내렸다. 징계를 받지 않은 문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사직한 뒤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재판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정씨가 엘시티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사 비용을 내준 정황을 포착해 살펴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 전 수석을 창구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현 전 수석에 대해 'VIP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이라고 평가했다.

asd123@news1.kr



이영훈 재판장,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의혹' 보도 작심비판

이영훈, 특활비 뇌물 무죄에 대한 불만 표출 아니냐 검찰 별도 성명서 "이영훈 판사 대단히 부적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 판사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9일자 경향신문 보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낸 이 판사가 양 전 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이 기사에서 언급됐다.

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대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난 상황에서 이 판사가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 기사는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며칠 전 모 일간지가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기자나 기사 속에 나온 법조계 관계자들은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라 믿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조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확인이 없었던 상황에서 기정 사실화하고 거기에 근거해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데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현이라고까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배성훈 부부장검사가 "재판장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만"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관련도 없지 않느냐" "따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얘기하지 않겠다"며 거절하고 퇴장했다.

검찰은 이후 별도 성명을 통해 이 판사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재판장 개인 신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yjw@news1.kr

민변,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위법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여부 등 정보공개 청구 진상규명 위해 410개 문건 공개 지속 요구할 것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410개 문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은 17일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30일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410개 문건 중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8일에는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1일과 18일 각각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민변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0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감사 업무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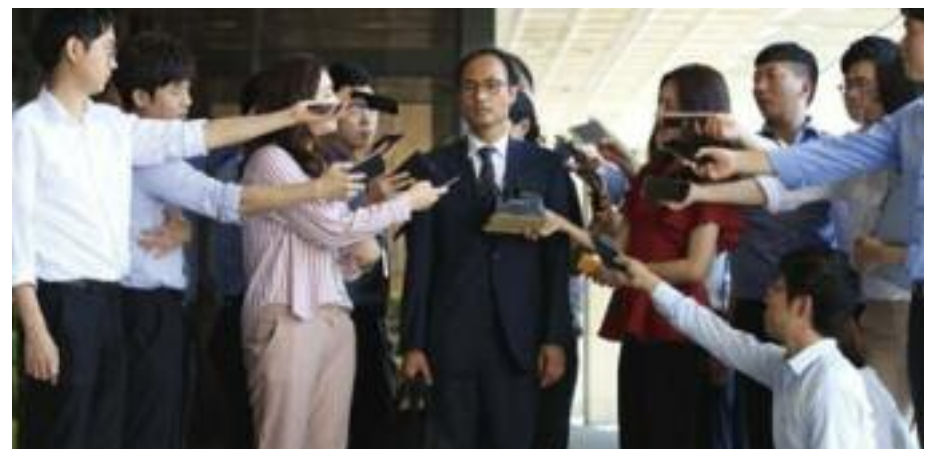
한다"며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라며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으로 제시돼 불분명하고, 410개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민변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는 이의 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변은 지난 13일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민변이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문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게,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롭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연매상 \$250,000 이상. 안정되고 물안에 좋은 자리 위치
안정된 고객층 및 발전 가능성 +
Asking \$220,000

Business NEW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Commercial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545,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NEW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NEW

드롭오프 스토어 매매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Asking \$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풀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들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Single Family
110 Hudson Road, Stow, MA
Asking price: \$675,000
Listing Agent: Kevin Curry
Phone: 978.852.2969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Rental
424 Washington Street - Unit 1
Gloucester, MA
Asking price: \$2,450/mo
Listing Agent: Bill Busiek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해요'

땅콩회항사건으로 대한항공의 장녀, '조현아'가 큰 곤욕을 치른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녀의 여동생 '조현민'의 물컵 사건이 일어났다. 언니의 갑질행동이 얼마나 크게 한국인들을 분노에 차게 했는지 자신의 눈으로, 피부로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현민은 자신의 갑질을 참지 못하고 언니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까? 그들의 어머니이자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를 보면 그 대답이 나온다. 그녀의 갖은 욕설과 패악질이 난무했던 현장의 증언, 증거들에 그 대답이 있다. 그 어머니가 그 딸들을 보면 탈무드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양희는 자신의 갑질 본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 확실하게 가르쳤던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부모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러다보니 부모가 집밖에서 보여주는 행동이건 집안에서 보여주는 행동이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라 명명한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누가 '동일시'의 대상이 되느냐는 아이들의 행동, 가치관, 성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조현아, 조현민은 남들에게 특권의식을 과시하며 살아온 어머니 이양희의 갑질을 그대로 동일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다고 생각된다. 조현아, 조현민은 자신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어머니 이양희씨의 속성에 동화하며 갑질의 행동이 잘못되어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특권층만이 누릴수 있는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조현아, 조현민의 어머니 이명희씨는 1971

년부터 1976년까지 교통부 차관과 중앙대, 인하대 총장을 지낸 고(故) 이재철의 장녀이다. 1973년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재원인 이재철의 장녀 이명희와 한진 그룹의 장남 조양호는 정략결혼을 한다. 항공 정책을 총괄하던 교통부의 차관 이재철이 교통부 차관직에 머무는동안 한진그룹은 많은 혜택과 성장을 했다. 정경유착의 사돈관계는 이들에게 더욱 큰 권력과 특권의식을 가져다주었다. 그녀의 세 자녀는 유학을 하며 명문 코넬, 서던캘리포니아에서 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 한진그룹의 고위직 상사로 탄탄한 대로를 달렸다. 이렇게 자신만이 특별하다는 블랙한타시의 나르시즘에 빠져있던 이명희가 자신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짐작되는 사건이 바로 장녀 조현아의 땅콩회항과 차녀 조현민의 물컵사건이다. 그녀의 아들 조원태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2000년 경찰 뺑소니 후 도주하다가 검거되고, 2005년 운전 중 70대 할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고, 인하대 시위자에 대한 욕설사건으로 이미 유명세를 치렀다.

이들에게 정신이 번쩍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장녀 조현아의 땅콩회항과 차녀 조현민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물컵사건이다. 그 이후 한진일가의 불법, 탈세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명희의 갑질도 드러났다. 그녀는 인천 하얏트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현장 공사 노동자들에게 발길질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현장 여직원을 밀쳤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서류를 집어 던졌다. 이런 막대먹은 행동을 하는 이명희의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던 교수였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이 온다. 도대체 이명희의 부모가 그녀에게 보인 본모습은 무엇이였을까? 강자앞에서 약해지고, 약

자앞에서는 강해도 된다는 본보기? 권력과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난 사람과 든 사람'이 되어야?

부모가 보여주는 본모습을 동일시하여 망신당한 또다른 재벌 3세들이 있다. 한화그룹의 아들들을 말한다. 2007년 김승연회장의 둘째 아들이 클럽에서 술을 먹다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가 눈 주위를 13바늘 꺾매는 상처를 입었다. 크게 격노한 김회장은 법적 절차대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사적 폭력을 동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회사 경호실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재벌과 조폭이 결합하는 보복 폭행을 행하였다. 아들과 다른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총처럼 보이는 것으로 위협도 했다.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사람이 없음을 발견하고, 진짜 때린 사람을 찾아야겠다며 북창동으로 향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때린 종업원을 폭행했다. 3시간 넘게 공포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 이후, 김 회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아들사랑이 지나쳐 보복 폭행을 하다가 개 망신을 당하고 만 것이다. 둘째 아들은 그 이후, 대마초 2범,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고, 마침내 2017년 김승연 회장의 세째 아들마저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는 '황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법보다는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 캐릭터'와 영화에 나오는 화끈한 '삼류 양아치' 캐릭터의 김승연회장을 동일시하며 자란 아들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만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바가지 새는 행동을 동일시한 자식들

은 바가지가 새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을 못한다는 사실이다. 무의식적으로 배운 것은 더 강하게 아이들의 사고에 각인되어지고,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 육하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이나 물건과괴, 언어 폭력으로 표현하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 아이들, 예상 못한 폭력앞에서 무서움을 겪어보았던 아이들, 언어폭력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신의 부모 행동과 비슷하다.

한진과 한화재벌 3세들의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방에게 갑질로 푸는 '분노장애'와 갑질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을'을 배려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장애'를 말한다. 그들이 보이는 폭행과 거친 언사는 이러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게 한다. 또한, 이들의 안하무인한 태도는 그들의 자기애적인 나르시틱한 자기방어의 장애를 생각하게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게 되며, 타인이라 자신의 만족과 끊임없는 찬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되면서, 거리낌 없이 '갑'의 행세를 하는 것이다. 자기애적인 이들은 자신이 이뤄 낸 성공에 만족과 함께 특권의식을 더욱 더 갖게된다.

어쩌면 그들의 부모는 자신들의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재벌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앞에서는 자신이 항상 '을'이 되어야 했고,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주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하여 이렇게 자신이 당한 피해를 다른 약한 '을'에게 풀어내는 것은 아니었을까?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잘 하겠습니다!

Jay Lee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금주의 LISTINGS



2 family house, Newton
투자나 거주에 적합
4 Pearl-Peabody St.

ASKING \$1,490,000



2 family house, Newton
good for investment
48-50 Lexington St.

ASKING \$1,250,000



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손"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

ASKING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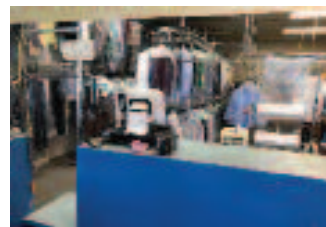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

ASKING \$1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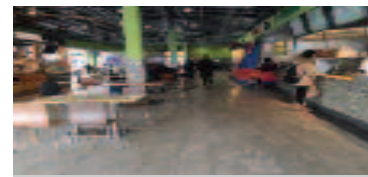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SOLD

1. 퀸지 마리아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

ASKING \$168,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요금정보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근로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임업진흥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스프링필드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글로벌건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건축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우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짐승식주문	781-648-0584
한이음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789-9330
백영주미용실	978-239-0141
송기백미용실	781-510-9924
송현미미용실	617-835-7664
순옥원미용실	508-737-863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엘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덴셜(이희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Premier Realty Group	617-642-3156
부동산	
뉴스타부동산	781-654-5281
애나진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789-9330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엘비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덴셜(이희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Premier Realty Group	617-642-3156
사건판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뉴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더팬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톤피시	617-282-2980
브룩라인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킴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라케무리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서울식당	617-973-6680
만나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도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도시	617-731-1122
Mr. 도시 (Arlington)	781-643-4175
불판	781-863-2800
본촌	617-254-8888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우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Espresso what?

처음엔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의 무지를 확인한 후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금은 문을 닫은 Toys Я Us란 장난감 가게 이름말이다. 뒤집혀진 R은 누가 봐도 인쇄상의 오타자로 보였다. 적어도 미국을 와본 적도 없고, 그러한 가게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신출내기 대학 강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미국에 온 후 Toys Я Us란 가게를 보게 되었을 때의 그 화들짝, 하는 감정이라니. 아하, 철자를 거꾸로 쓰기도 하는구나, 어차피 R이든 거꾸로 쓴 Я이든 발음은 are와 같으니까. Toys Are Us(장난감이라면 우리 가게죠)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오히려 거꾸로 쓴 Я로 시각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무렵에는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상상할 뿐이었다. espresso란 단어를 처음 본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상하게도 사전에서 찾을 수 없었다. Express line은 '급행, 고속버스'란 뜻풀이가 되어있는데 espresso가 뭔지는 아는 사람은 없었다. 창피하지만, 당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express를 잘못 쓴 것 같다고 얼버무린 기억이 난다.

세월이 흐르고 서울의 골목골목에서도 새

까맣고 진한 espresso를 즐기게 된 다음에도 필자는 젊은 시절의 무지가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리곤 했다. espresso에 관한 필자의 에피소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해 애리조나의 투싼에서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우리의 현대자동차 '투싼' 덕분에 익숙하긴 하지만, Tucson이라 쓰고 [투싼]이라 읽는 백인들은 참, 그렇다. 그곳 인디언들은 [투싼]이 아니라 [톡손]이라 읽는다. 아무튼 마침 제자가 찾아와서 별다방으로 갔다. 점원에게 "espresso, please"라 했는데, 점원이 의아한 눈초리를 필자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쉬운 단어의 발음을 못 알아듣다니, 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되풀이했다. "이-에스-피-알-이-에스-에스-오, 에스프레소." 하지만 점원은 여전히 필자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미소까지 짓는 것이 아닌가? 명색이 영어선생인데, 제자 앞에서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졌다. 난처한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점원이 천천히 뒤돌아서더니 카운터 위쪽 벽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가리켰다. 거기엔 Espresso란 글자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아래에 주~욱 커피 이름들이 적혀있었다. 카푸치노, 라테, 어찌구 그리고 맨 아래쪽에 Shot이란 글자가 보였다. 아하, 내가 에스프레소라 생각했던 것이 Shot이라는 것이로구나. 등줄기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제자는 어느 새 저 멀리 테이블에 가 앉아있었다.

영어의 실수에 관한 한 누구나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한 원로 교수님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LA의 아들 집을 방문해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아들들과 식사를 하셨다. 여긴 당신의 '나와바리'니까 당신께서 사겠다고 하면서 my territory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한다. 그러자 아들 왈, "아버님, 영어학자 맞아요? 그뎨 territory가 아니라 turf라고 해야 하는 걸요" 하더라. 학술원 회원이시고 우리 시대 최고의 영어학자라는 세평을 들던 그분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교훈을 80이 넘어서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배움엔 끝이 없다.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어를 외는 것을 넘어서 그 단어에 녹아있는 축적된 문화의 두께를 배우는 것이다. 영국의 언어인류학자 수전 로메인은 한 단어가 사라질 때마다 인류의 지적 유산이 사라지는 것이고, 한 언어가 사라질 때마다 인류의 소중한 지혜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안타까워한다. 예를 들면 '가래'란 농기구가 있다. '가래'는 세 사람이 협동해서 논밭을 갈아엎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래'를 아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고, 그것이 전달해주던 삶의 방식은 박물관이나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다.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를 행가래 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가짜로 가래질을 한다는 '헛가래'에서 유래했음을 알기란 더욱 어렵다.



TCCHA 케임브리지 주택공사 웨이팅 리스트 오픈

2018년 8월 1일 오전 12시부터 케임브리지주택공사(CHA)는 패밀리퍼블릭하우징(Family site-based)의 웨이팅리스트 온라인 예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최초 로터리 기간: 2018년 8월 1일부터-8월 31일

8월에 받은 예비신청서는 케임브리지주택공사(CHA)가 이를 보관했다 8월 31일 이후 웨이팅리스트에 있는 포지션에 배당할 것입니다. 전자 로터리는 무작위로 생성한 예비 신청서의 일시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이후에 선호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선호조건에 관한 정보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1일 이후에는

8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예비신청서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 날짜와 시간 순에 따라 순서대로 접수 됩니다.

케임브리지 주택 공사는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출신국, 연령, 장애, 성 정체성, 성적 기호, 혼인여부, 가족 신분 등에 기초해 차별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서비스 및 각종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계소득 자격조건

공공주택에 자격조건이 부합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가족수에 바탕을 둔 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0% OF AREA MEDIAN INCOME							
1 Person	2 People	3 People	4 People	5 People	6 People	7 People	8 People
\$56,800	\$64,900	\$73,000	\$81,100	\$87,600	\$94,100	\$100,600	\$107,100

예비신청서 접수시간 및 랩탑 장소

만약 컴퓨터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는 한인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LOCATIONS	DATES	TIMES
MANNING APTS 237 FRANKLIN ST. CAMBRIDGE, MA	August 1st, 15th, 29th	10 AM - 1 PM
JEFFERSON PARK 1 JACKSON PL. NORTH CAMBRIDGE, MA	August 7th, 14th, 21st	10 AM - 1 PM
PISANI CENTER 131 WASHINGTON ST. CAMBRIDGE, MA	August 6th, 20th	4 PM - 7 PM
ROOSEVELT TOWERS 14 ROOSEVELT TOWERS CAMBRIDGE, MA	August 2nd, 30th	9 AM - 12 PM
MANNING APTS 237 FRANKLIN ST. CAMBRIDGE, MA	August 16th	4 PM - 7 PM

예비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요청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요청하려면 주택공사 (617-520-6532)로 전화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unwoody) Pastoral Center Church

2018년 6월10일부터 9월2일까지
주일 미사 (Sunday)
 오전 7시 30분 (Korean)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30분 (Korean)
 (7월 첫 주부터 한시적으로 11시로 변경)
 오후 4시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MIDONG CHAIR
SLIDING CHAIR

사람을 중심으로 의자를 만든다!

어떤상황에서도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인체공학 의자

미동체어의 기술은 장시간 앉아 있는 회사원, 학생에게 바른 자세를 유도/제공합니다. 슬라이딩 기능을 활용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바른자세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 척추측만증
- 일자목 또는 거북목
-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위가 시인한 학생과 수험생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생활하는 학생과 직장인
- 늘 피곤하거나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을 받으시는 분
-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학생과 직장인

Wing Mechanism	장시간 학습시 안락권을 주던 기존의 등받이 포자를 해결하여 등받이가 항상 등을 지지하고 가슴과 허리를 좌우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해 준다.
Sliding Mechanism	좌석시 조곤의 어느 부분에 핸드 등이 닿았을 때 분이 인체의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며, 10cm이상 미끄러져 항상 등을 받쳐주고 균형을 유지한다.

미동체어 입하 Special Price ~~\$890~~ **\$599**



미 최대 규모 명품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INADA DREAMWAVE
106개 에어백으로 혈관을 자극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풀어주고, 노인성 질환 당노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250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J7
3명의 프로 안마사가 동시에 156가지 기술을 발휘, 단순한 롤러가 아닌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강력한 안마의자
\$167 /월 60개월 + Tax

INADA NEST \$2,900 \$6,000 24개월 + Tax	INADA FLEX 3S \$7,500 \$4,300 12개월 + Tax	PANASONIC MA73 \$223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70 \$139 /월 36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POSITIVE POSTURE BRIO \$6,900 \$4,500 24개월 + Tax	OSAKI OS Pro Maestro \$8,700 \$6,200 24개월 + Tax	FUJIIRYOKI FJ 7900 \$158 /월 36개월 + Tax	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

6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침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 입증되었습니다!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Up to 24개월 무이자 할부 (다우 공시 신청) 무료배송

침실문화의 혁명! 모션베드 출시!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임산부 - 허체부종, 갑자기 풀어진 체중으로 인한 무거운심 완화
- 수면부 - 깊은 무중수면, 골반과 관절의 변형으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할 때
- 한여름/겨울에 하는 일 - 스마트 폰 / TV 시청 / 독서 / 노트북
- 방안 중이 있는 분들 - 효율이 높지 - Zero G (무중력 격도)

더 이상 잠만자는 침대 기구가 아닌 독서, 게임, TV 시청 등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수직, 수평,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한 '멀티공간'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현양콜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콜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먼린도넛 매장 옆) 201-941-0010

'미션 임파서블6', 정점 찍은 톰 크루즈의 스텐트 예술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가히 예술의 경지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자신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여섯번째 영화로 돌아왔다.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되풀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성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전매특허가 돼버린 스케일이 큰 '액션신' 때문이다.

지난 16일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국내 처음 공개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은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지천명 톰 크루즈의 '원맨 액션쇼'를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20년째 세계 최고 스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에단 헛트는 건물과 건물을 건너뛰고 헬기 추격전을 벌이며 절벽에서 적과 아슬아슬한 격투를 벌인다.

이야기는 전편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2015)과 이어진다. 전작의 악당인 솔로몬 레인이 다시 한번 등장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또 다시 에단 헛트와 그의 팀을 흔든다.

IMF의 요원으로서 활동 중인 에

단 헛트는 솔로몬 레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만든 테러리스트 조직 '아포스틀'의 핵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주요 원료인 플루토늄을 가로채야 하는 미션에 들어간다.

하지만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역이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특유의 도덕적 성품이다.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스파이 집단의 상식처럼 여겨지거나, 그는 매번 팀원을 챙기거나 무고한 사람을 구해주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물론 이는 관객들이 에단 헛트의 감정에 몰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그뿐 아니라 그의 희생을 밀바탕으로 단단하게 쌓아온 팀워크는 결정적인 순간 큰 힘을 발휘한다.

속도감 있게 연결되는 액션 시퀀스들은 관객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특히 위험천만한 스텐트를 직접 소화하기로 유명한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에서 최초로 헬기 조종에 도전했고, 높은 고도 낮은 개방

(High Altitude Low Opening, 헤일로 점프)을 100차례 시도한 끝에 최종 컷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영화 말미 등장하는 아찔한 절벽 신은 실제 노르웨이 피오르드에 매달려 촬영했다.

CG로 많은 것이 가능한 요즘, 관객들의 몰입감을 위해 직접 스텐트에 뛰어든 톰 크루즈의 액션은 재미를 넘어 감동을 준다. 실제 그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무릎 부상을 당해 한동안 재활 치료에 매달려야 했다.

로케이션 촬영을 택한 것은 톰 크루즈의 액션과 어울려 영화의 사실감을 배가시켰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파리와 런던 등 도시의 장면들에서는 기발함이 엿보이고,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에서 찍은 장면들에서는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신이 스틸감을 더한다. 더불어 벤지(사이먼 페그), 루터(빙 라메스) 등 팀원들과 선보이는 농담은 피식피식 웃음을 준다. 특히 벤지표 변장은 소소한 반전으로 잔재미를 준다. 오는 25일 개봉.

eujenej@news1.kr



7월 22일 - 7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쥐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p> <p>● 운수: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수입은 무난한 편입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만 가지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소띠 물이 고여 있으면</p> <p>●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변화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 금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을 들고 도는 것이니 붙잡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범띠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p> <p>● 운수: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감정에 빠져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애정: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화나게 하는 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5일 길일, 24, 2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토끼띠 새록새록 피어나는</p> <p>● 운수: 다시없을 인생의 기회라 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회가 왔을 때에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애정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용띠 꼼꼼히 확인해야</p> <p>● 운수: 위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극복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금전: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게 되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28일 길일, 22, 2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뱀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p> <p>● 운수: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극복해나가야 차츰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됩니다.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26일 길일, 22, 2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말띠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p> <p>● 운수: 신체 에너지가 상승하니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 애정: 모처럼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히 자낼 수 있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4, 26일 길일, 22, 2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양띠 내실을 기해야</p> <p>● 운수: 내 자식이라도 나와 같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기억하고 자신처럼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먼저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는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 애정: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싸움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원숭이띠 만족할만한 결과가</p> <p>● 운수: 여러 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도 이제는 훌훌 털어내고 벗어납니다. ● 금전: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소중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느낌이 알 수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8일 길일, 22,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닭띠 신나서 일하게</p> <p>● 운수: 운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연결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바쁘고 힘들어도 신나서 일하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도 생깁니다. ● 애정: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감춰두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면 잘 전해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개띠 막상 코앞에 닥치면</p> <p>● 운수: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은 되지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해놓고 또 막상 코앞에 닥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따지고 가리게 됩니다. ● 금전: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신의 손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애정: 힘들다고 하면서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5, 27일 길일, 23, 2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돼지띠 돈이 들어오게 되는</p> <p>● 운수: 너무 완벽을 기하다보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 집니다. ● 애정: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가까이에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5/11
Cambridge에 있는 카페에서 일할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분.
T. 857-205-2307

5/11
세탁소에서 가족같이 일하실분 구합니다.
초보자도 가능, 시간은 원하시는 시간으로 협상가능.
T. 774-571-2837

"상상먹방도 OK" '전참시' 이영자, 영혼도 치유하는 먹교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전지적 참견 시점' 이영자의 전매특허 맛 표현이 또 빛을 발했다. 심지어 이번엔 '상상 먹방'에 서다.

지난 14일 밤 11시5분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매니저와 생애 첫 동반 CF 촬영을 앞둔 이영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영자는 매니저와 한강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 컵라면 냄새를 맡고 힘들어했다. 그는 컵라면을 먹고 있는 커플을 불러내 자신이 갖고 온 오골계 초란을 내주며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이영자는 "이렇게는 못 견뎌"며 "간단하게 살 안찌는 것으로 빈 속을 달래주자"고 했다. 이영자가 매니저를 데리고 간 곳은 '두부맛집.' 간단하게 저녁은 하얗게 마블링된 쇠고기 한모"라며 "밭에서 나

는 소고기라고 한다"고 말하고는 매니저와 맛있게 두부를 먹었다. 매니저도 "기대 안하고 한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영자는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이영자는 이내 맛집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위기를 느꼈다. 아는 맛집이 나올 때마다 반기는 이영자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굽기야맛집 앞에서 음식 맛을 상상하며 마치 그 음식을 먹은 듯 맛깔나는 '상상 먹방'을 펼쳤고 매니저는 그때마다 그런 이영자를 안타깝게 바라봐 좌증을 폭소케 했다. 게다가 '성냥팔이 영자'의 모습을 하고는 음식 냄새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고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구경하며 "음식을 먹어보라" "맛있냐"는 등 애절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더했다.

aluemchang@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비디오스타' 김원희, 평생 한 사람 사랑 가능 질문에 "지켜봐 줘" 폭소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비디오스타' 김원희가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했다.

17일 방송한 MBC every1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 김원희가 솔비의 질문에 재치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안겼다.

솔비는 평생 한 사람하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기혼 출연자에게 질문했다. 그 말에 흥경민은 "이혼할 계획이 있냐고요"라고 되물었고 성대현은 "이혼

은 너무 심해. 새장가 갈 계획이 있냐고 묻는 거냐"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솔비는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자신 있으신지 궁금하다"라고 설명했고 김원희는 "지켜봐 줘. 그걸 뭘 말로 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성대현은 "우리는 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고 대꾸했고 김원희도 "싸울 때는 크게 싸우지만 화해는 빠르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europ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슬픔을 견디는 방식(1)

저기압 전선이 사흘간 꼼짝도 안 한다. 구름으로 짙은 하늘, 습하고 뜨거운 지열을 땀을 흘린다. 호모 사피엔스, 그저 맨몸으로 무리를 지어 살 때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들이 웃을 입고 땀에 젖어 어디론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걷는다. 좀처럼 땀이 흐르지 않던 내 몸도 이렇게 끈적한 습기와 낮은 기압에는 반응을 한다. 척추를 타고 흥건하게 흐르던 땀이 옷에 밴다. [섬]은 우이동 입구에 있다. 이곳으로 오는 한 시간 반 동안 내내 땀에 젖어 몸에 감기는 옷을 벗고 싶다는 생각과 그 예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맨몸으로 무리 지어서 사는 인류가 아닌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된 은미의 몸과 마음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거의 사십 년 만에 연락이 닿게 된 것은 학교 졸업생들이 등록만 하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의 앱 때문이었다. 무심히 그런 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을 한 후 몇 달 간 잊고 있었다. 그저 그 앱의 아이콘만 멀뚱하게 핸드폰에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나 이것저것 눌러 보다 앱의 알림 기능을 켜자 나에게 서너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를 기억하고 있고 몹시 반갑다는 메시지들 중 내 기억을 한꺼번에 사십 년 전으로 끌고 들어간 아이의 이름이 있었다. 은미, 그 아이와 나는 5학년 때같이 잘

놀다가 6학년 때 일방적으로 내가 그 아이를 피하면서 친구 관계가 끊어졌다. 은미에게서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왔다.

엄마는 학교에서 청소를 했다. 난 복도에서 엄마를 만나면 대롱대롱 매달리며 좋아했고 엄마는 뭔가 눈치를 보는 듯 나를 떼어 놓으려고 애를 쓰시곤 했다. 그때는 엄마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엄마를 만난 것만 좋아서 감동거리다 교실로 들어가곤 했다. 지금 생각하니 엄마는 그때 근무 중이었던 것이다. 그때 난 엄마 가방에서 몰래 십 원이나 이십 원을 훔쳐 만화 가게를 가는 게 유일한 오락거리였다. 많은 아이들이 만화방에 몰려들어 좁은 만화방에서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화에 빠져들었다. 난 엄희자, 송순희의 만화를 좋아했다. 한 반에 육십여 명이 있었던 교실 내의 빈부 격차는 입고 있는 옷과 준비물을 잘 갖고 오는지로 알 수 있었다. 엄마가 학교에서 청소를 했지만 노름만 일삼는 아버지와 아들 셋에 딸인 나를 포함한 여섯 식구가 살아내려면 살림은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옷은 몸만 가릴 수 있으면 웃이고 준비물은 수시로 빌려야만 했다. 그런 생활 중에 내가 엄마의 지갑을 뒤져 십 원이라도 훔치는 것은 엄청난 비행이었다. 모든 비행은 은근한 쾌감을 동반한다. 난 만화를 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엄마의 지갑을 뒤져 십 원이나 이십

원을 꺼내는 스릴도 함께 즐겼던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그늘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노는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른 아이들의 수준은 그 나름대로 집단을 이루었는데 나는 그 어느 또래 집단에도 끼지 못했다. 한 반에 두서너 명은 또래를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은미는 옆 반에서 외톨이로 있던 아이였다. 나와 은미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만화방을 함께 가는 친구로 발전했다. 하지만 나에게도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얼마 후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수준을 가늠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좋아서 강중강중 뛰던 나는 온데간데없고 저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학교에서 엄마를 보면 슬쩍 몸을 숨기곤 했다. 마음이 조금 비틀려 성장하던 나는 여전히 만화방 출입을 했으나 만화 보는 일에 서서히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의 단편 소설을 우연히 읽게 된 것이었는데 만화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재미를 본 것이다. 만화방에 가지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은미에게 난 오늘 돈이 없다고 가기 싫은 핑계를 대면 은미가 대신 돈을 내줄 테니 가져와 한다. 몇 번을 그렇게 심드렁한 채로 만화방을 찾았다. 그래도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만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은미에게 할 말이 있어 고개를 들고 은미를 불렀다. 은미가 왜?라고 대답하는 순간 난 은미의 앞머리카락 사이에서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그 뒤로 은미의 머리만 유심히 보았고 은미의 머리카락 속에서 살고 있는 벌레들, 이가 있는 아이와 지금까지 놀았다는 것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몹시 자존심이 상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몸에도 뭔가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했다. 유일한 친구였지만 난 학교에서 피해야 하는 사람인 엄마와 함께 은미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정문에서 나를 기다리는 은미를 피해 하염없이 수영장 뒤의 철봉대 밑에서 정문을 수시로 내려다보며 은미가 지쳐서 가기를 기다렸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에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리터처먼트(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축 개업 25주년

저희 태양자동차를 찾아주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지식/오랜 경험! 태양 자동차 공업사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65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진짜 멋은 수수함 속에 있음을...

가끔 지나가는 길에 뒤돌아 다시 보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수함에 끌려서일 게다. 요즘은 별 것마다에 끼워 넣고 명품 명품 하는 그런 명품이 아니어도 좋다. 남을 의식하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흘렀을 뿐일 게다. 그렇다, 굳이 애써 꾸미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 몸과 마음에 배인 게 갖추고 단정한 그런 단아한 모습일 게다. 제 아무리 명품을 입고 두르고 쓰고 신고 들었어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아 어색하면 남의 것을 빌려 입고 두르고 쓰고 신고 든 것 같은 모습인 것을 말이다. 멋은 자연스러워야 더욱 멋지지 않던가.

사람마다의 개성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각양각색으로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개성이 어우러져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굳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는 식의 방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싶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나의 형편이 가질만해서 선택하는 것이면 좋으련만 남을 의식해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고 허욕이 아닐까 싶다

. 무엇보다도 자신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신을 신어야 제일 편안한 것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던가. 무엇이든 내게 어울려야 편안한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을 방문하면 도착하는 그 날부터 한국인의 나이별 유행이 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곤 했었다. 오가는 남녀의 옷도 옷이러니와 여자들의 화장 역시도 비슷비슷한 모습에 자신만의 개성 없이 우르르 따라 하는 식의 멋 내기가 내게는 참으로 쓸쓸하게 다가오곤 했었다. 어쩌면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먼 곳에 살다가 한 번씩 찾아가기에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유행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어울리는 멋을 찾는 것이 센스이지 않을까.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 이처럼 나를 모르니 남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던가. 삶에서 가끔 나 자신의 내면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을 가질 수 있다면 남을 의식하는 시간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내 속의 허함이 어쩌면 아우성치다 참을 수 없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네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늘 허기지고 맥이 떨어지는 그 무엇이 바로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은 아닐까.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공적인 것은 마음의 평온함보다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치장하고 꾸민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불안한 것처럼 균형이 필요하다. 옷이든 사람이든 간에 조화를 이뤄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자신에게도 그러하거나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편안함을 주어 좋다. 눈에 보이는 밖의 치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치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연스러움이란 내면의 것이 차오르면 저절로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진짜 멋은 수수함에 있음을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에 올라서야 깨달아 간다. 어려서 는 남을 의식하고 많이 살았다. 결혼해 연년

생으로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이 많이 찐 탓에 몸의 살을 뺄 생각보다는 몸을 가리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모른다. 키가 작은 편이니 신발 굽이 높은 것을 늘 찾고 신였으며 남을 의식하며 한껏 멋을 냈었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며 하나둘씩 나의 치장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것이 그럴 것이 산을 오르면 살찐 것을 감출 수도 없거니와 등산화를 신으며 작은 키를 더는 키울 수 없는 까닭이었다.

옛말에 '항 썩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썩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제아무리 밖으로 치장하고 한껏 멋을 내도 그 안의 것은 자신이기에 내면의 것을 감출 수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밖의 보여지는 것보다는 안의 것을 더욱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에 오르고 보니 더욱이 그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난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멋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남을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를 순수한 나를 그대로 놔두고 흐르는 데로 바라다 봐주는 일이 진정한 멋이고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한담객설閑談客說: 송강松江 정철鄭澈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조선 선조대에는 대단한 신하들이 많았다. 이항복 이이, 이항복과 류성룡이 그 분들이다. 임금의 일급 참모중엔 정철도 빠지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송강을 말한다. 그가 맡았던 관직도 다양하다. 강원도와 함경도 관찰사, 예조판서, 대사헌을 모두 거쳤다고 했다. 그 많은 요직중에 도승지도 빠질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격이다. 분명 송강은 친선親宣(친선조)이라 해야겠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정철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야박하다. 소설가 김훈의 표현이다. 한국소설 갈의 노래에 나오는 대목이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만, 말투는 싸늘하다. 차라리 매멸차게 읽히는 거다. 소설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독백이다.

"정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민첩하고 부지런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근면히 살육殺戮했다. 살육의 틈틈이, 그는 도가풍의 은일과 고독을 수다스

럽게 고백하는 글을 짓기를 좋아했다. 그의 글은 허무하고 요염했다."

난세엔 인물이 많이 나온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물들의 기량이 돋보인다는 거다. 임진왜란은 선조때에 일어났다. 정치인 정철이 활동하던 바로 그 시기이다. 그가 동인이었던가? 서인이었던가? 여당과 야당을 지칭하는데, 구분은 모호하다. 다만 그는 정치인으로서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 어려운 시기에 의심많은 임금 밑에서 신하노릇도 마냥 쉬운 건 아니었을 터. 그의 정치행보는 시원하지도 요염하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다는 말이다. 상당히 문학적이다.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었던가?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디모데 후서 3:1, 공동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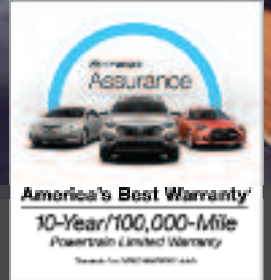
여름이 한창이다. 산과 계곡이 은근히 손짓한다. 계곡물은 소름돋게 차가울 것이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송강 정철이 지었던 관동별곡이 있다.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웠다. 그의 가사歌辭/歌詞는 대학입시에 자주 등장했다. 당연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다. 다시 읽었다. 눈과 귀가 시원하다 못해 몸서리 쳐진다. 이 대목은 금강

산이 배경이다.
백천동을 지나 만폭동에 들어가니 은銀같은 무지개요, 옥玉같은 용의 꼬리라. 쉬여 떨어지는 물소리 심리를 울려 퍼지니 들을 적에 우레요, 볼 적엔 흰눈이다. (정철, 관동별곡 중에서)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J1 VISA 리스 할부 가능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19,195

Automatic, FWD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3,143

Automatic, FWD

2017 Hyundai Tucson SE

Lease: **\$10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6,206

Automatic, AWD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7,405

Automatic, AWD

2018 Hyundai Kona SE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3,875

Automatic, AWD

2018 Hyundai Tucson Limited

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0,375

Automatic, AWD

2018 Hyundai Santa Fe SE

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4,290

Automatic, AWD

2018 CONSUMER SATISFACTION AWARD

DealerRater

36 month lease with 10,000 miles per year. All lease prices exclude sales tax, title, \$650 acquisition fee and \$495 documentation fee. Taxes are additional. No security deposit.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Valued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vehicle distributed by Hyundai Motor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Coupon. Competitive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 See your local dealer for program details and list of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Valued Owner Coupon. All offers expire 07/31/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50)

작은 회사(Small Cap)투자 필요성

월스트리트 신문에 최근 발표된 기사 (Investors return home as small caps lead the way by Ben Eisen, WSJ, June 11, 2018) 하나를 인용합니다.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림의 반복으로 다우 존스의 수익률은 2.4% 그리고 대기업을 나타내는 S&P 500의 수익률은 3.9%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작은 회사(Russell 2000 Index)의 수익률은 현재 8.95%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Apple이나 Amazon과 같은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는 다우 존스와 S&P 500지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우 존스는 30개 회사 그리고 S&P 500은 500개 회사의 주식변동을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30개 회사 주식으로 주식시장 변동을 말한다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역사가 길고 일반인에게 익숙하므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우 존스의 부

족함을 S&P 500지수가 보충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을 투자자에게 알려줍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비롯하여 뮤추얼 펀드, 투자상품, 다른 투자 종목 등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S&P 500 지수를 인용합니다. “나는 키가 크다.” 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나이 또래 평균 키와 비교해서 크다.” 라고 말해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뮤추얼 펀드 수익률이 5%라고 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분명 높지만, S&P 500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7%일 때는 분명 좋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S&P 500 인덱스는 하나의 기준치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자주 인용합니다. 이런 결과로 일부 투자자는 주식 투자는 S&P 500 인덱스 펀드만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종목은 다양합니다. 회사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외국 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목이 어떤 시점에 높은 수익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여기저기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분산투자로 투자 위험성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90년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참고하며 큰 회사(S&P 500 지수)는 10% 그리고 작은 회사는 12%입니다. 작은 회사의 수익률이 2%가 높지만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 투자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투자 위험성 때문입니다. 회사 규모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은 어느 시점에서는 큰 회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작은 회사에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은 무수한 요소(Factor)에 의해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투자자의 감정(Emotion)도 작용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다란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은 달러를 강화합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외국에 진출한 미국 국내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과 무역전쟁에서 영향을 적게 받는 기업은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가 해외에 진출했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회사는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은 회사의 수익률이 상승한 것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어느 시점에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 위험성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섹터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투자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분산투자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35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2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신국神國 신라新羅에는 신궁神宮이 있었다. 거기에는 신들을 모셔놓고 배향하였다. 여기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기록들을 고찰하면서 설치년대와 주신主神과 제사를 주관한 제관/신관 등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화랑세기를 함께 읽으면서 연구한 신궁과 삼국사기(또는 삼국유사도 포함)에 기록된 부분만을 볼때는 그 개념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안에서 그 설치연대를 상이하게 기록하고 있는 점은 몇 가지 추측과 상상을 더욱 부추긴다.

먼저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나오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신라의 종묘제도는 살피건대, 제2대 남해왕 3년(서기6년) 봄에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 묘를 세워 네 철에 제사 지내고, 친 누이동생 아로阿老에게 제사를 주관케 했다. 제22대 지증왕은 시조가 탄강(내려와 태어남)한 곳인 나을奈乙에 신궁神宮을 세워 제향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신라본기’에는 “소지왕9년(487년) 봄 2월에 나을奈乙에 신궁神宮을 설치했다. 나을은 시조가 처음 태어난 곳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한 곳에서는 소지왕(제21대, 재위 479 ~ 500

년)대로, 다른 한 곳에서는 지증왕(제22대, 500 ~ 514년)대로 기록되어 있다. 두 왕의 통치기간이 도합 35년이나 약 650년이나 지난 1145년에 완성된 삼국사기의 기록이 큰 격차가 나는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500년을 전후하여 신궁이 설치되었음이 분명하다(아니면 소지왕때 지어진 신궁을 지증왕때 증축 확장했는지도 있지 않겠는가?).

다음은 신궁의 주신은 누구였을까? 학자들도 여러가지의 견해를 나타내지만 그 견해들은 먼저 신라의 건국시조이자 박씨 왕 시조인 박혁거세, 다음은 김씨 시조인 김알지, 그리고 김알지 후손으로 김씨로서는 최초의 왕인 미추왕, 마지막으로 김씨가 신라의 왕위를 독점하는 계기를 마련한 내물왕이라고 나누어진다. 즉 종합적으로 봤을때의 공통점은 주신이 조상신이란 것이다. 그리고 박혁거세라는 주장이 우세한데 그 신궁의 설치 장소가 바로 박혁거세 탄강한 나을이기에 설득력이 강해진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주신이 조상신이 아니라 천신天神이란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그럼 왜 학자들 간에도 여러가지의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가? 삼국사기 어디에도 명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제 22대 지증왕부터 제55대 경애왕 까지의 기록에 신궁이란 단어는 20여 차례 등장하지만 모두가 “왕이

천히 신궁에 제사를 드렸다” 는 기록이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화랑세기를 읽어보면 신궁의 주인들을 밝혀낼 수 있다. 즉 신궁에는 한명이 아닌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었으며, 신궁의 모든 주인들을 가려낼 수는 없으나 그 중 몇 명은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먼저 화랑세기서문의 첫 구절을 다시 본다. “화랑은 선도仙道다. 우리나라에서 신궁神宮을 받들고 대제大祭를 행하는 것은 마치 연燕나라의 동산桐山, 노흘나라의 태산泰山과 같다. 옛날 연부인이 선도를 좋아하여 많은 미인을 길렀는데 이름하기를 국화國花라고 했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로서 원화源花를 삼게 되었다.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하고 화랑을 설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받들게 했다”

화랑세기 서문에 등장하는 첫 구절인데 화랑의 유래와 전개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다. 위 기록의 상세한 고찰은 ‘화랑세기 서문(1~4편)’에서 다루었기에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신궁神宮만 국한해서 보면 신궁에서는 대제를 올렸다. ‘대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천지사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당시의 대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고찰하고 연구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간단히 화랑이나 원화가 신궁의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다. 즉 화랑과 원화들이 신궁에서 대제를 지내는 데 참여하였을 것이란 사실이다(김태식은 “비약이 허락한다면 원화 혹은 화랑은 신궁이나 대제에 봉사하는 신관神官 정도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라고 기술하였다 - 화랑세기, 또하나의 신라, 67쪽).

그 다음으로 화랑세기에 신궁이 등장하는 곳은 4세 풍월주 이화랑조이다. 원문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인용하여도 신궁이 발원發願의 장소였다는 것 외에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이 원문 역시 ‘화랑세기 4세 풍월주 이화랑(13편)’을 참조하길 바라며 인용을 생략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세 풍월주 사다함조에 보면 신궁이 그냥 신궁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신궁이라고 등장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나무위키,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비즈니스 시작하기 (2)

개인사업자/법인 어느것이 유리한가? (2)

S corporation과 LLC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의 장점과 법인(corporation)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이번주는 S corporation과 LLC에 대해 살펴보자.

1. S corporation

S corporation은 법률적으로 S corporation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일반법인(C corporation)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세무상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주(state) 정부에 S corporation이라는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주(State)정부에 S Corporation을 별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 IRS에 신청해야

즉, 법률적으로는 C corporation, S corporation 구분없이 모두 법인(Corporation)으로 설립되고, 이중 일정요건을 갖춰 IRS에 세무목적상으로 S corporation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S corporation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무측면에서 S corporation이 되면 법인의 장점인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세무상으로는 이중과세를 피하게 된다.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한 몇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주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거주자(resident alien)이어야 한다. 즉, 주주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으면 S corporation이 될 수 없다.

▪ 주주는 개인주주여야 한다(estate, 일부트러스트도 가능). 즉, 주주 중에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 LLC가 있으면 안된다.

▪ 반드시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법인 미국지사 등은 S corporation이 될 수 없다.

- 주주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주주가 S corporation에 동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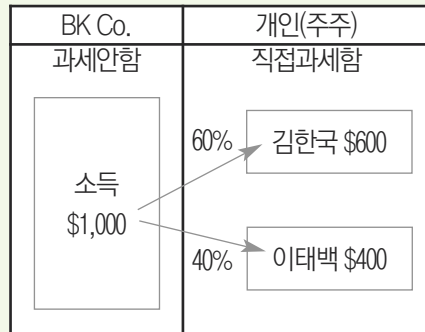
법인에는 과세안하고 주주에게 직접 과세함

그럼 S corporation과 주주에게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자.

BK Co. 현황
1. S corporation
2. 2018년도 이익: \$1,000
3. 주주현황 - 김한국: 60%, 이태백: 40%

위 사례의 경우, 세법에서는BK Co.(S corporation)의 2018년도의 이익 \$1,000이 각 주주에게 실제로 배부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각 주주의 2018년도 소득으로 본다. 즉, BK Co.의 소득 \$1,000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분율'에 따라 60%(\$600)는 김한국, 40%(\$400)는 이태백씨의 소득으로 본다(pass-through). 그 결과 법인인 BK Co.에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인 김한국씨와 이태백씨에게 직접 과세한다. 이렇게 주주에서 직접 과세함으로써 S corporation에게는 일반법인(C corporation)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2.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말 그대로 투자자('member'라고 함)가 사업과 관련한 채무 등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이러한 LLC는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만큼 기존 여러 사업조직체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

LLC는 주(State)정부에 설립신고 해야

LLC는 별도의 법률적 조직이다. 따라서 LLC를 설립할 때는 형식을 갖춰 주 정부에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설립이후에는 법인(corporation)과 유사하게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 규정 등이 법인(corporation)에 비해 덜 까다롭고 다소 느슨한 편이다.

LLC는 세금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Check the box rule)

그럼 LLC는 어떻게 세금을 내나?

LLC가 등장한 배경이 법률상으로 책임은 적게지고(유한책임), 세무상으로도 유리한 방법을 적용받겠다는 것임을 상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세법에서는 LLC의 과세방법을 LLC가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의 과세방법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Form 8832을 IRS에 제출). 그런데 LLC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트너십의 과세방법을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Single-member LLC(투자자(member)가 한 명인 LLC) 법인(C또는 S corporation)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는 한 LLC투자자의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로 본다(disregarded entity).

S corporation과 LLC는 둘다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돼

따라서 LLC가 과세방법으로 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을 선택하면, LLC는 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즉, LLC의 이익이 각 투자자(member)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LLC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고, 그 투자자(member)에게 직접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S corporation이나 LLC는 둘다 법률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세무상으로는 주주(또는 member)가 직접 세금을 내는 아주 유사한 사업조직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주에 S corporation과 LLC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World-Okta NJ



2018 북미 차세대 지도자 아카데미

AUGUST 17-19

Hilton, Hasbrouck Heights / Meadowlands, NJ

3 일간의 영감, 네트워킹, 학습 및 검증된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자격 조건

젊은 한인 2세 차세대 지도자 중,
DC (MD), FL, GA, IL, MA, NC, NJ, NY, SC, VA 지역에
거주하는 20-39 세 사이의 지도자.

Hosted by World-Okta NJKACC 

APPLY

www.2018okta.splashthat.co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숏 세일(Short Sale)로 주택 구매시 주의할 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와 뉴욕의 집값이 올랐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부동산이사회(REBNY)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1분기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콘도의 거래가격은 2015년 같은 시기에 비해 32%나 올랐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베이사이드의 콘도 거래 가격은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글라스턴과 리틀넥 지역의 상승 폭은 무려 90%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많게는 22%에서 적게는 11% 상승했다고 합니다. 뉴저지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카운티의 2015년 주택 평균가격은 2010년에 비해 최고 2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오르지만 하는 집값과는 달리 미국 경제는 각종 지표의 부진 속에 새로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암울한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숏 세일(Short Sale) 구매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숏 세일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숏 세일이란 상환해야 하는 주택융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는 몇 년 전 \$55만 불짜리 주택을 구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50만 불을 빌렸습니다. 얼마 후 김씨는 직장을 잃고 경제난에 빠졌습니다. 모기지를 갚을 수 없게 되었고 주택을 제

로 관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는 주택을 소유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주택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의 시세를 알아보니 \$40만 불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상환해야 하는 주택융자금은 \$45만 불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40만 불에 집을 판매해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이 \$5만 불이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에게는 \$5만 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김씨는 상환해야 하는 융자금보다 싼(short) 금액에 주택을 팔아도(sale) 되는지 은행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되는 방식이 바로 숏 세일입니다. 만약 은행이 숏 세일을 승인하여 주택이 팔린다면 대부분의 경우 남아있는 융자금과 숏 세일 판매금액 간의 차액은 은행이 변제해 줍니다.

숏 세일 성사 여부의 가장 큰 관건은 은행의 승인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빌려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회수하게 되므로 숏 세일 승인에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숏 세일이 불가피한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집주인의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융자금을 갚아나가기 어렵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다양한 절차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차압(Foreclosure)보다는 숏 세일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은행의 승인절차가 숏 세일 구매자에게는 종종 뜻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승인이 나오기까지 얼마

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도 알아보고 이사 계획도 세워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학교편입 시기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 기약 없이 몇 달을 기다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집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숏 세일은 적합한 구매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숏 세일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예상보다 많은 수리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숏 세일의 이면에는 집주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집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압경매를 통해 매매되는 주택보다는 일반적으로 숏 세일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숏 세일의 경우에는 클로징까지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클로징 전에 구매자가 집을 둘러볼 기회가 있지만 차압된 주택의 경우에는 몇 개월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매를 통해 매매가 완료되기 전까지 구매자가 집의 상태를 살펴볼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매매되는 주택보다는 숏 세일로 매매되는 주택이 더 많은 수리와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숏 세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용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숏 세일로 집을 구매하실 때는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소유권(Title)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경제 상

황이 어렵다 보니 주택융자금 외에도 다른 저당(encumbrances)이 잡힌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숏 세일로 주택을 구매하신 고객의 케이스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은행으로부터 숏 세일 승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검색(Title Search)을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에는 주택융자뿐만 아니라 건축업자가 돈을 받지 못해 걸어놓은 유치권(Mechanic's Lien),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Judgment), 연체된 세금으로 발생한 유치권(Tax Lien) 등 수많은 저당이 잡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문제가 되는 저당들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계획된 클로징 날짜에 매매를 마무리시키긴 하였지만, 해당 기간동안 고객은 마음을 조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점들을 잘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숏 세일은 좋은 집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숏 세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관심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숏 세일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보스톤권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34.99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 상속 .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톤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서,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